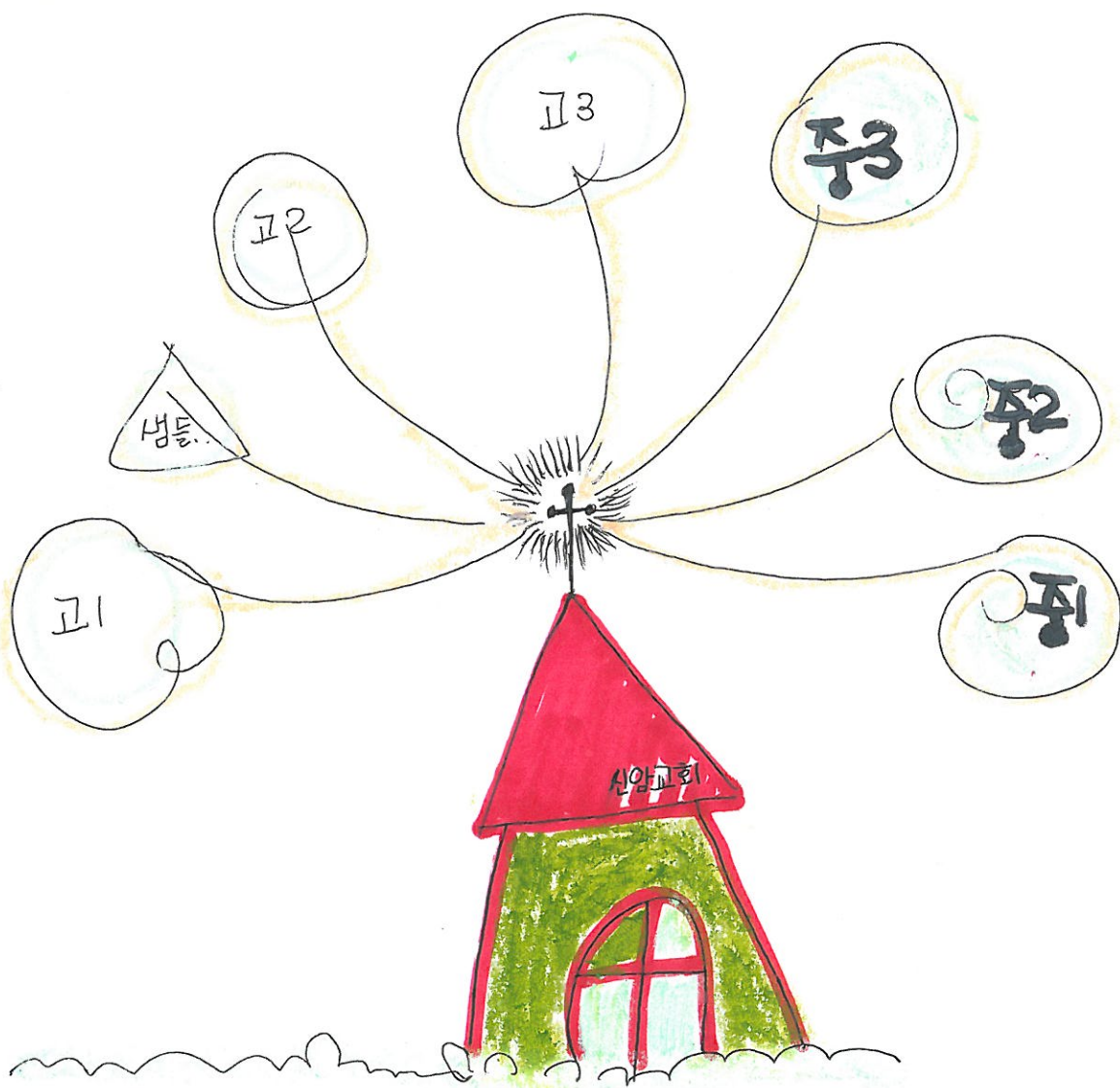


2018'

중고등부 수련회 1백일장



신암교회 중고등부 학생일동 기음

표어



표어

그가

죽을 때마다 나쁘게 해주는 것은

보일러, 아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행시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드리며

책 읽강양게 교회를 가자.

시

하나 ~~하나~~



성경책 한줄

믿음 ~~하나~~ 하나

책 한줄

지식 하나

가사 한줄

느낌 하나

한줄을 읽으면 하나님이 온다.

너희도 ~~하나~~ 그렇다.

우리는 하나다.



은하?

거짓 순례자

순례자의 삶

그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남들처럼

거짓되고, 목보이고

그리고 저들을 정죄하지만

회개의 변명으로

주님께 난 뽕뽕합니다.

순례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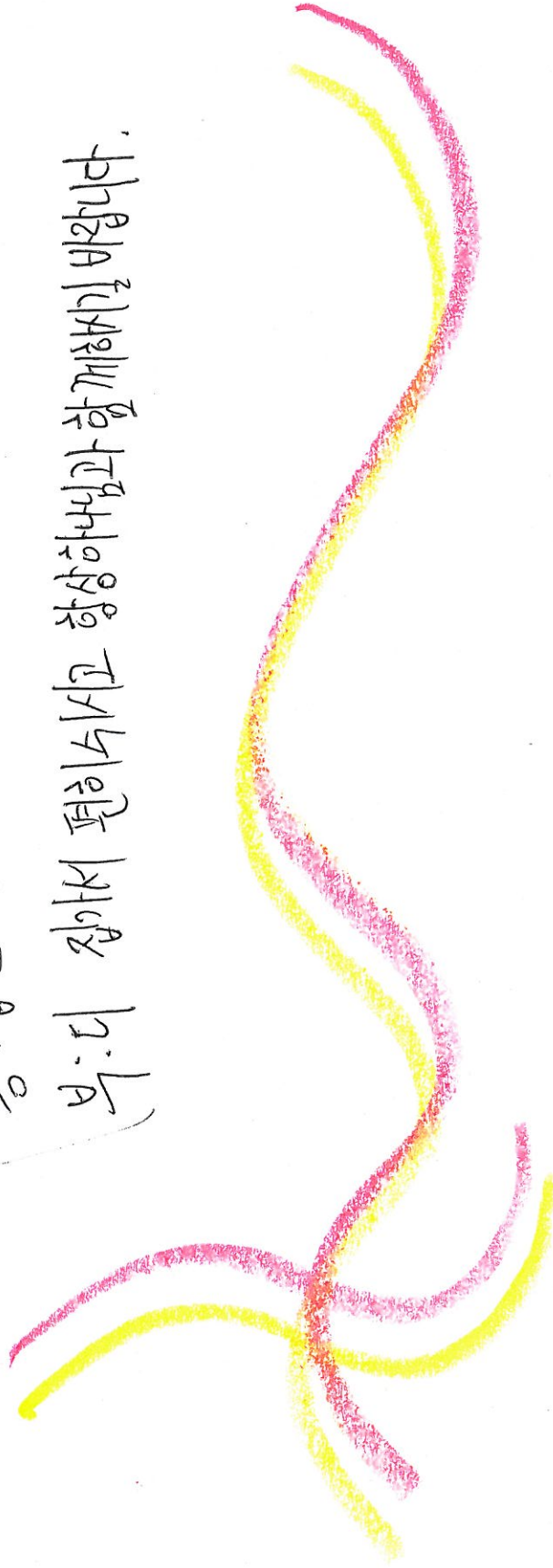
그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중: 10월 10일

고: 10월 10일

등: 10월 10일

부: 10월 10일



이의 일기

☆ 감상문 / 등

1월 27일 토요일




제목: 수련회를 마치며

오늘의 일기의 시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작하고 싶다, 처음 수련회를 간다는 공지를 받고 하원도 많고 날씨도 추운데
가야했지.. 고민했지만 고등학교 들어가 많은 인간관계와 처음 만반 갈등속
에서 항상 두려워 하고 하나님을 잊고 어리석게 행동한 적이 많아 이런 나를
깨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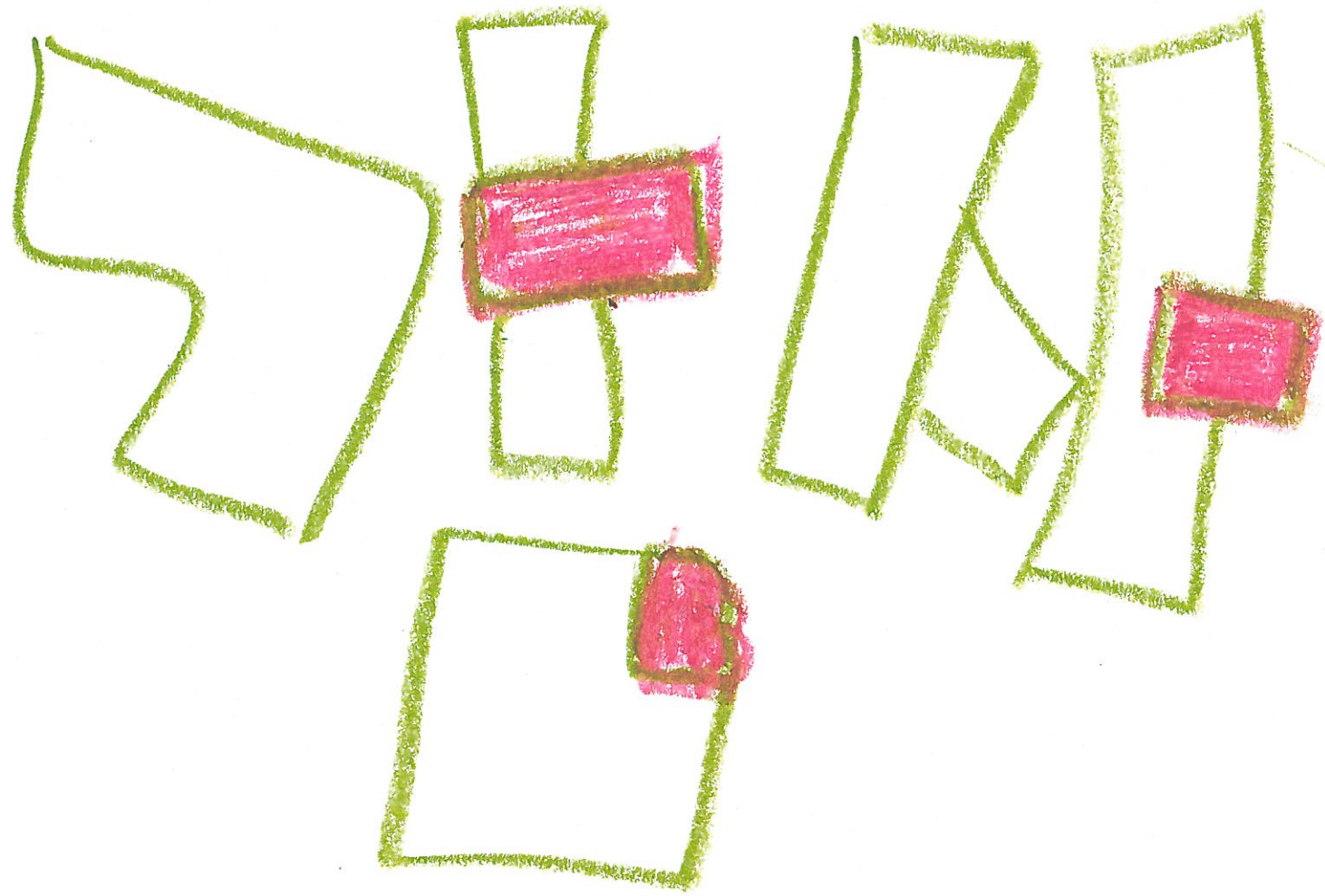
이번 수련회는 전과는 다른 새롭고 재밌었던 활동의 연속이었다.
찬양시간은 정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린, 정말 복음이 느껴지는 시간
이었지만 나에게 가장 인상 깊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찬양시간 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 "나는 항상 남들보다 더 잘하고 살고 더 예쁘고 잘생겨지고 살고
모든 일에 목숨을 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이
지난 나의 2017년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학교 생활 중 내 정수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친구보다 내 이익을 생각하고 많은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럼 없고
자신있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나.. 생각하였다.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
들이 많았고 항상 나는 그들 앞에서 더욱 믿고 하지 못하였다. 여러 생각들로 양당 선생님과
새벽 내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믿음이 부족했던
나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2017년, 힘들고 눈물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일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린 내였다. 아직 완벽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된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나를 웃고, 울고, 슬프고 즐겁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을 주신 하나님도, 나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좋은 기도 해주신 예수님, 진솔한 말씀 주신 목사님, 장로님, 이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는 말 전하
고 살고 사랑합니다 - ♡

1월 27일 날씨: 추운데 많음. 

선생님께 수련회를 간다는 통보 아닌 통보를 받았을 때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를 지배 하였지
않다면 짧고 길다면 가는 1박 2일 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얻어가는 게 많았는
단 기억에 많이 남은 시간은 우리모두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 찬양을 한 때였다. 이제 무슨
기억에 남은 일이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찬양을 통해 사장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은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감동 받고 나를 한번더 되돌아 보게 되고 그냥 뭔가 생각이 많아
여견쌤 기도를 통해

저는 기도였다. 분명 여기 도착하고 나서도 '아 빨리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견쌤 기도를 듣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이 기도를 듣고 지기전 친목과 당당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가 끝난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고민했던 내용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해답책도 내주고
정말 내 주위에 이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다는게 세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겠다고 느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여견수련회에게 정말 감사하다. -끝-



삼행시: ~~심~~ 심: 심계명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계: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라

대: 명을 다하여 지켜야 할 율법이다.

표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세우셨다~~
사랑하사 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강연은 2월

수련회를 마치고

이번에 중학 중등부 수련회를 처음으로 조금
이색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 아는 형님들이
잘 챙겨 주어서 재미있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때는
보게 될 식사였다. 비록 4등은 하여 김과 밥이
당첨 되었지만 2등 인조가 같이 먹고 하여
먹었다. 2등 한 조에게는 너무 교만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재밌게~~ 많은걸 알려주었다.
잠깐때 비록 졸긴 하였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재밌게 해주셔서 재미있었다.



시 240!



겨울 어느 날
물집에서 나와
수련화꽃 봤다
연애하고 싶다 이걸로
회심하게 유니폼 그려준다

구현

상행시

중: 중나라에 중이 필요해서

고고인 끝에 수련리에서 받은 유년풍 등

등: 등등 파랗다, 그래서

북: 북라기 리라라

꽃이: 신나고 매일 보고 싶은 중고등복귀라!



삼행시 =

하 = 나님

나 = 를

버리지

막아주세요

부끄럼

없어

말씀만

되게하면서

노복하게도

하

님 =

사랑해용

♡♡♡

표어 =



나님은우리

♡아름

숙예

제선생

은혜가

있어주!

가을수련화



1월 26일은 봄날 수련화

우리에게 계절 수련화는 사랑이고

~~하~~

하루도 흐르지 않아 찬하거 늘 있지만

~~하~~

하루날 길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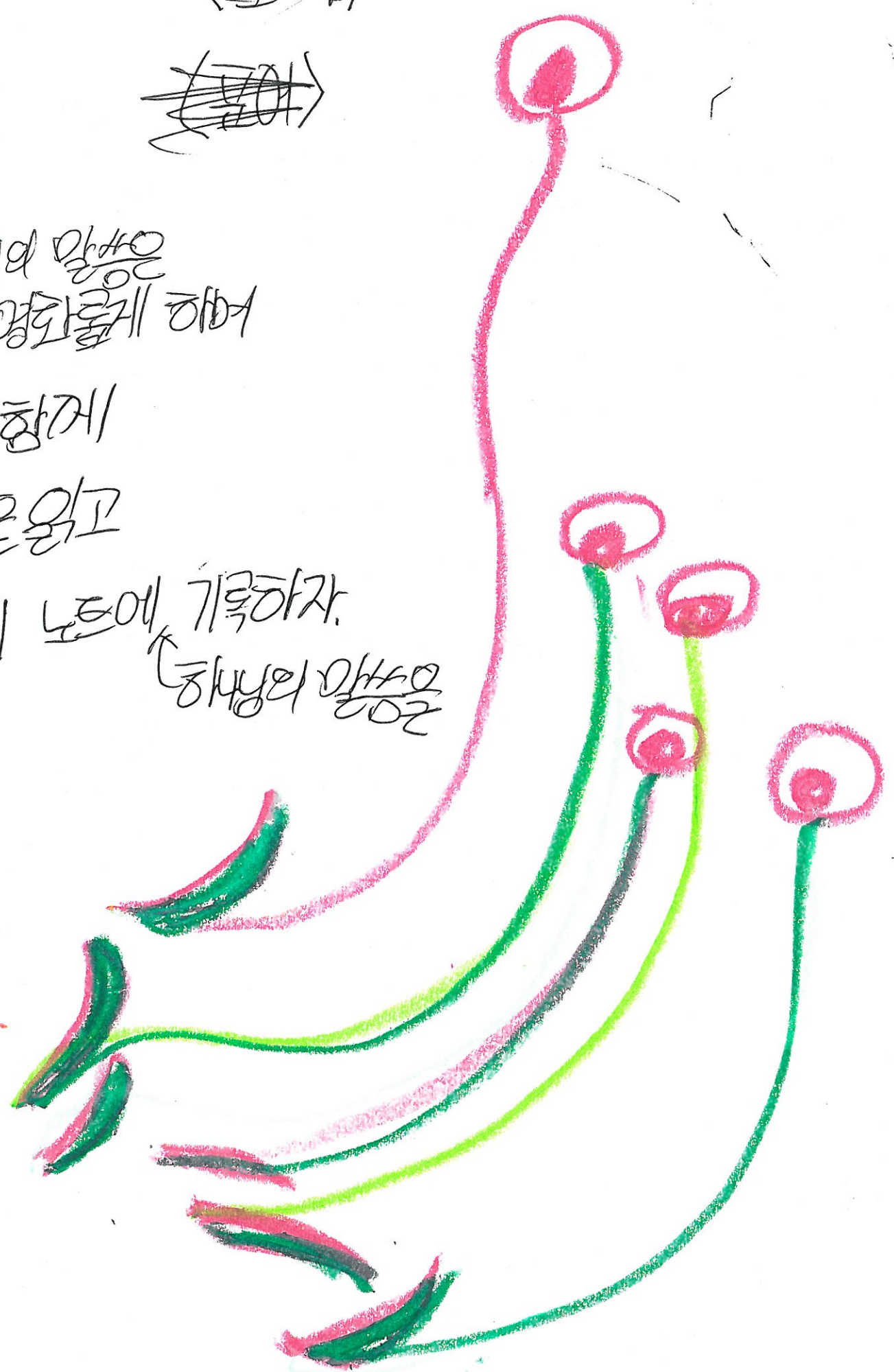
이벤트에게 러 필해줄것 줄줄나다

하루날 온정하고 애정함 나랑 !!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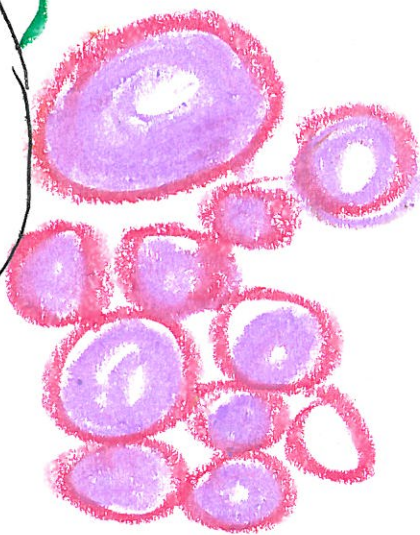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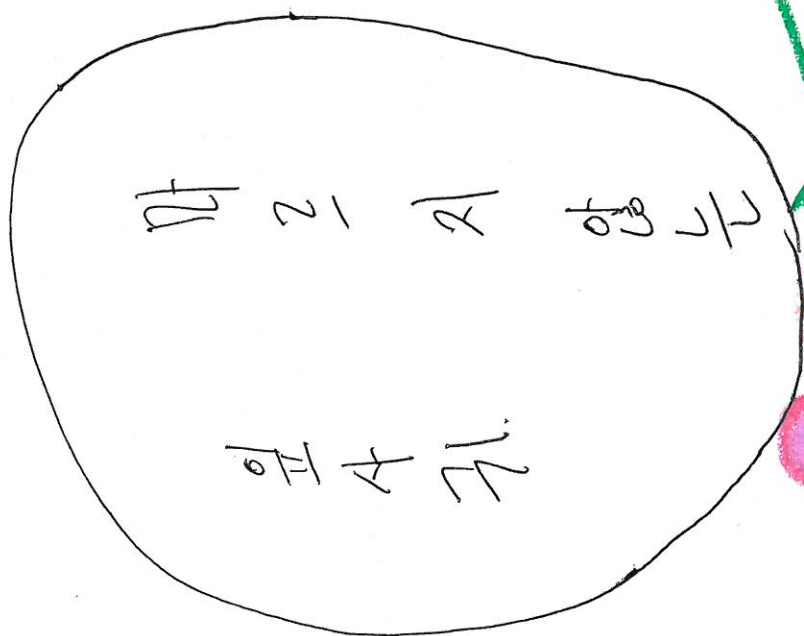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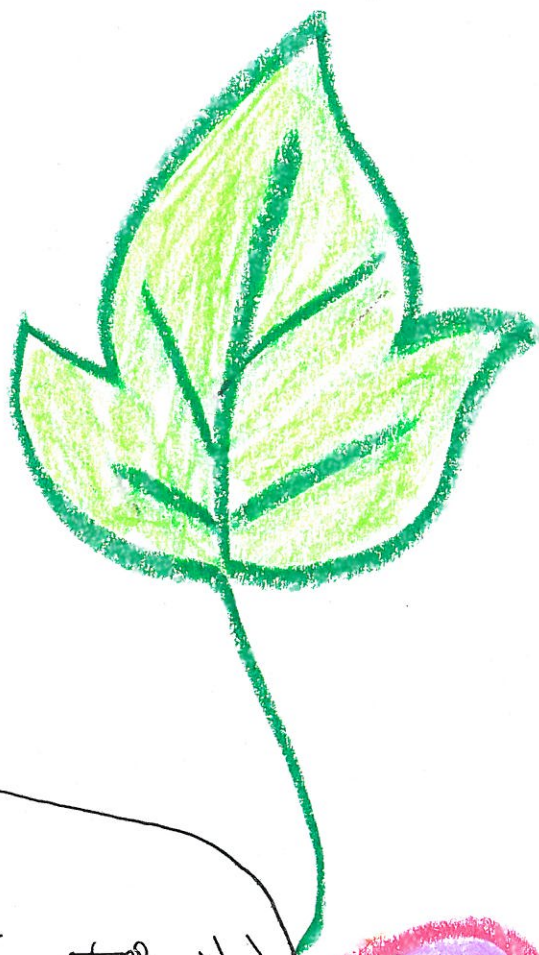
~~기억~~

① 나만의 말풍선
② 나를 영화롭게 하여
③ 영과 함께
④ 말풍선 읽고
⑤ 생이 노트에 기록하자.
 ↑ 나만의 말풍선



~~Handwritten scribble~~

~~Handwritten scribble~~



표어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자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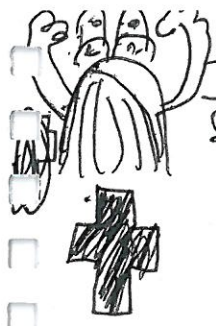
어

부고등부 빛나는 중학교

주님으로



중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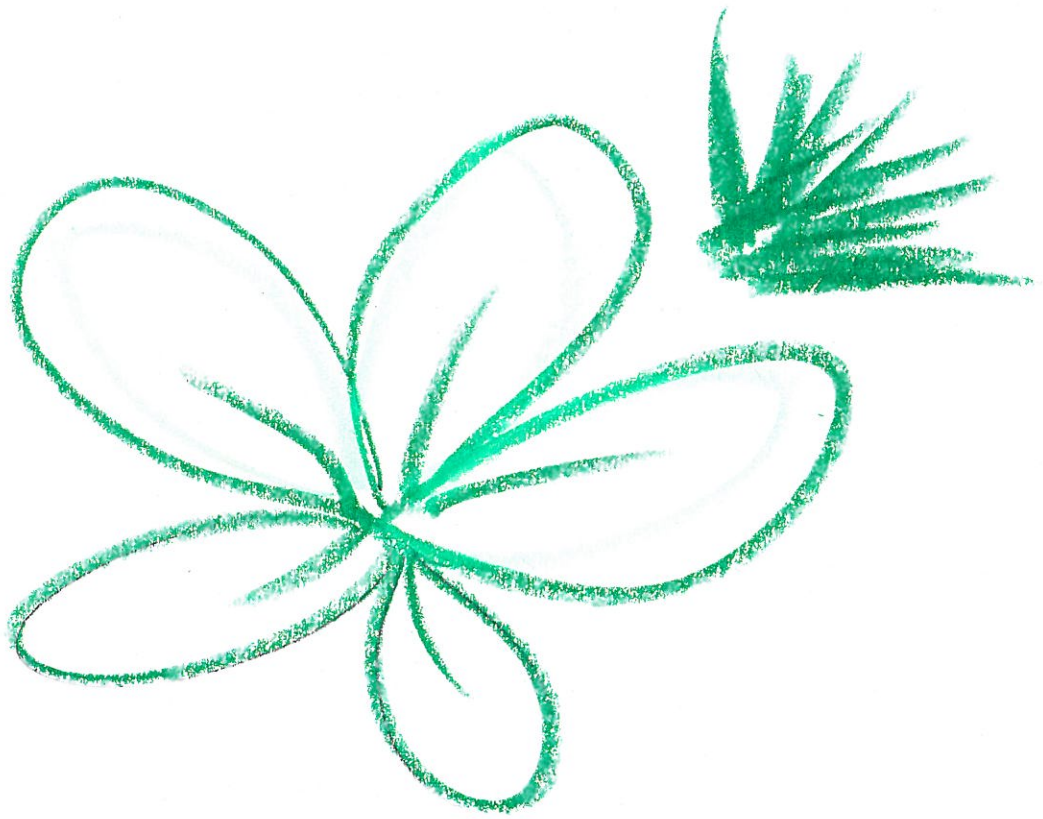
모이 하나씩 이 우리들 사랑 하고 인연 주서서
~~두려움 하나씩의 인연~~ 가능하답니다

상행시

○ 경책에서 많은 것을 안다

○ 경책하여 본다

○ 책을 집중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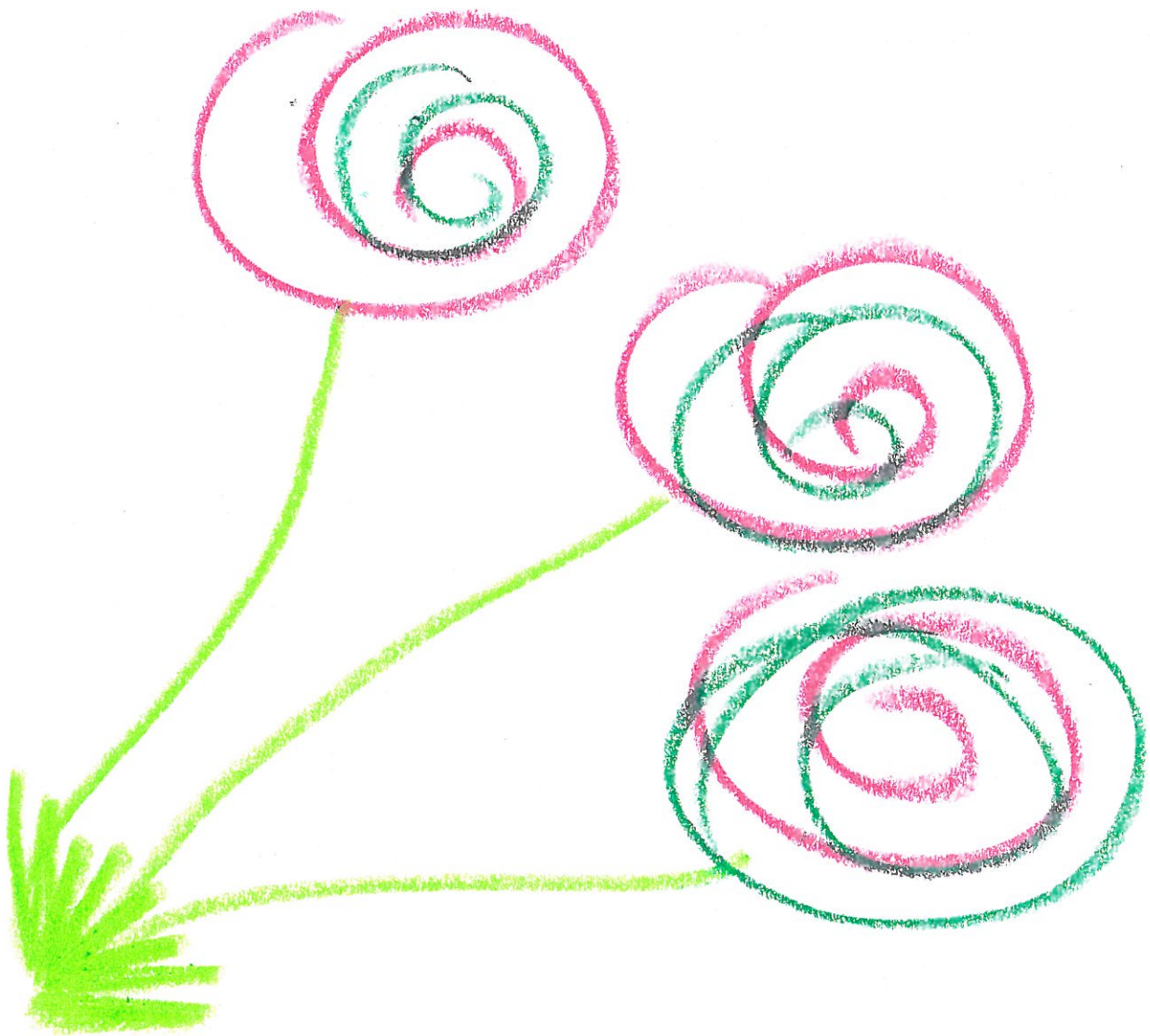
저 : 우 수년 회를 은하로 왔다, 서

은 : 은 초저기원 - 6.6 기러 내려갔다, 해리만 수만

수 : 수년 회를 와서 너록 중리만 모크동까지 불서 다산할 수

문 : 문 회를 배라 기

오 : 오 회를 배라 불리 로수아



「기」! 을 수련회 간 ~~한~~ 다른 소리에

588

「기」: 리턴 내마음

「수」: 수련회에 도착 ~~리턴~~ ~~한~~ ~~수~~

「리」: 리턴 상공을

「회」: 주형에게 주지받고 자에게 주세요

한마음으로 보아는

중고 ~~수~~ 부들

강생들

2 등

죽은 날

계를 수련회에 도착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내마음이 있다

그럼에도 캠프 파이어 ~~에~~

한마음 ~~으로~~ 내마음을 녹인다

으로

~~수련회~~

~~수련회~~

~~수련회~~

수련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너무 바람이 불어서

~~모든~~ 모든 것들이 하기 싫어진다

따뜻한 ~~한~~ 포도주처럼 밤에

술에 가시오 싶어진다

그런데 캠프 파이어 ~~로~~

불을 녹인다 그리고

따뜻한 그마를 봤

모두 새로운 죽음을 사냥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아쉬웠다

그럼에도 재미있고 내연에도

또한 의미가 상관없다

내연에는 러를 겁

재미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중요하다

① 아이폰 사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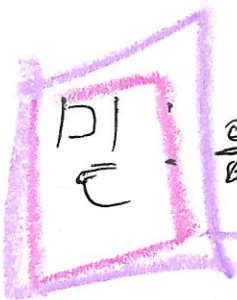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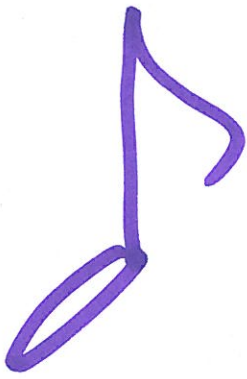
② 치마처럼 생각하며

③ 이 내성각

④ 이 리배까지 앓고

⑤ 이즐 들으며 스마트폰이

⑥ 이즐 알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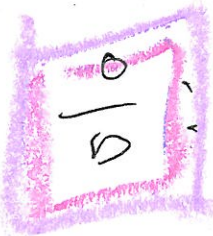


미
ㄷ



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우리



음
음

음표같이

다 온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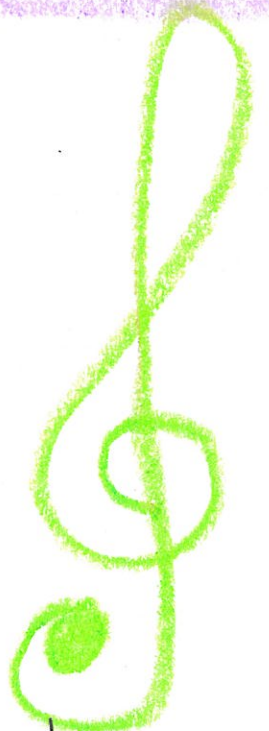
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빠르게 유니폼을
가져간다



수련리

수려히 미 가며 예뻐 그리고 먹고 잔것 별이 지만 오랫동안 친구라 자그눔새 재밌고
레크레이션, 바비큐, 캠핑마에, 강변로 캠프에서 라서 회근 느낌도 있었지만
고구마도 먹고 딸기도 음식 먹은것 친구, 형들과 외도 해보고 민트 봉투 나눠
~~먹었다~~
이런 광풍으로 각종 놀이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두리 메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물때를 알았을 땀과 같이 노고 기억해내면
물상보관 좋은 사람들 보내고 갈때 오느 덕분에 전혀 부끄럼 없었지
이 모든 것 준비해주신 장로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하소연
바위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맨전날에 저녁을 같이
도와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 강변로 드라이브
스마트 폰이 심각성과 아플리 클리케이션 이제 어떻게 살아야하
일상생활 리얼리티 우리가 함께하고 두리가 별다른 관공러와 나쁜것을 갖지않게
~~가장~~ 항상 우리 곁에 있길

A hand-drawn diagram of a stylized face. The face is composed of several parts: a large, rounded, pink-filled shape for the head, outlined in purple. Inside the head, there are two large, purple-outlined eyes. The left eye is a solid purple shape, while the right eye is a purple outline containing a pink-filled circle. Above the eyes, there are two vertical purple lines representing eyebrows. Below the eyes, there is a purple-outlined shape for the mouth, which is filled with pink. The entire face is enclosed within a large, hand-drawn purple oval. To the left of the oval, there is a pink line that extends from the top of the oval and then curves downwards. In the top left corner, there is some faint, handwritten text in Chinese characters, which appears to be '哈哈' (hahaha) and '哈哈' (hahaha).

II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사람 행세

예수님

예수님의 행

수! 천국 왔는데 반대로 가요?

남! 남? 행님?

시 :

하나님

하나님

만물을 주시고 더 많게 해주세요,

성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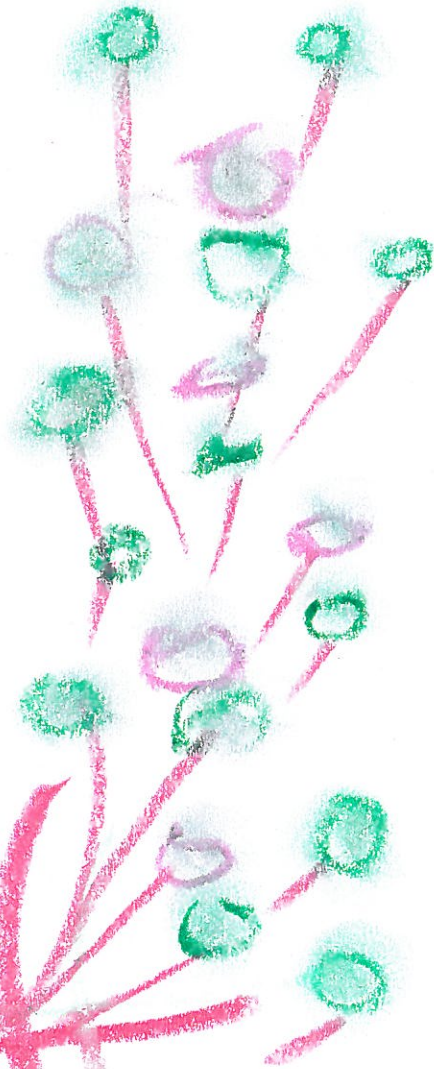
사랑을 주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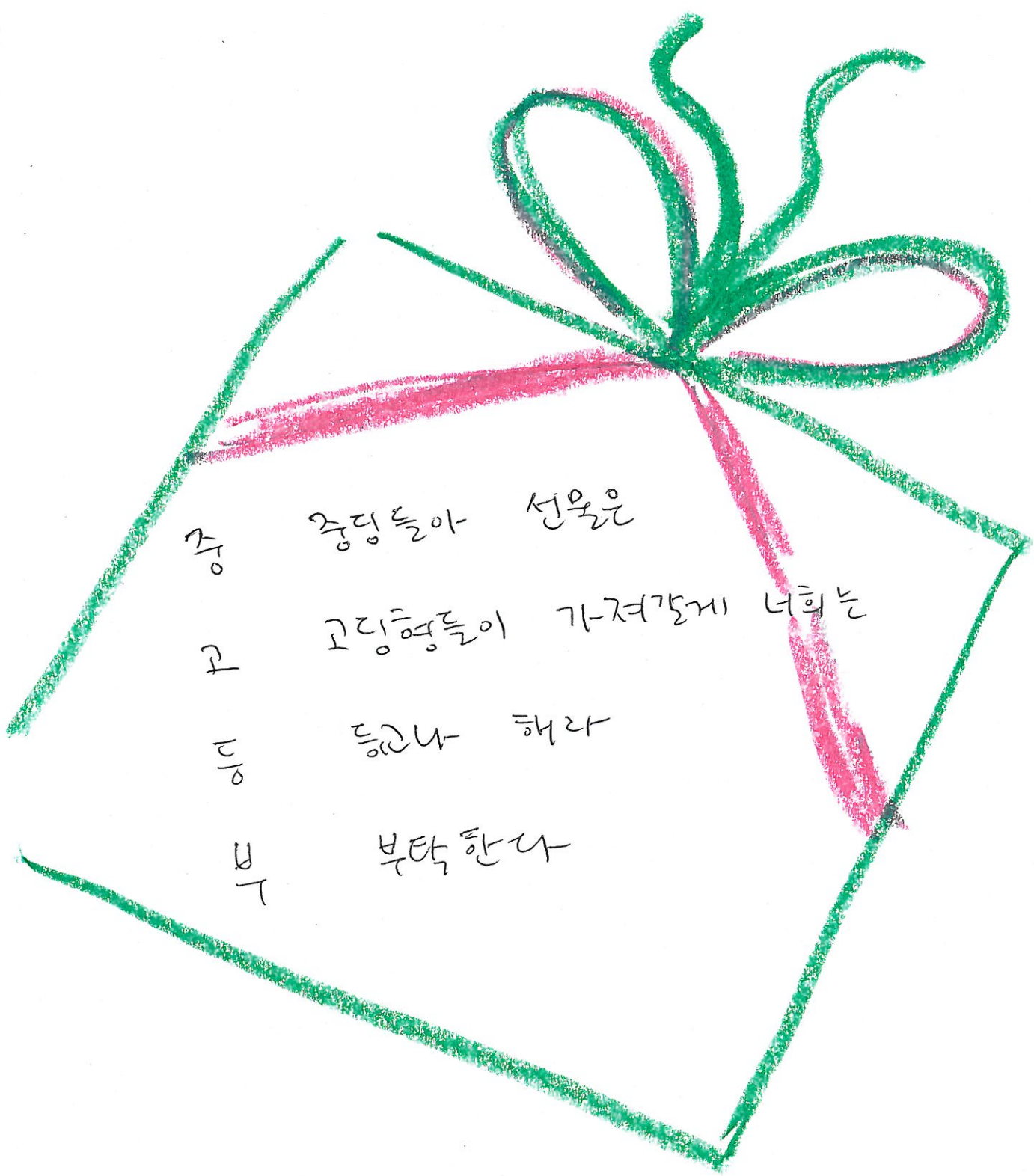
예수님

지혜를 주시고 더 현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행

분상을 주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
고
님
들
중
딩
들
아
선
물
은
고
딩
행
들
이
가
져
가
는
너
희
는
등
교
나
해
라
부
탁
하
나

중: 중년들은 마음이 아파요

가: 고등 ^형학생들이 신_들을 가져 간다고 하니
+ : ~~가져 간다고 하니~~ 하

중: 중교나 ~~하~~ 하라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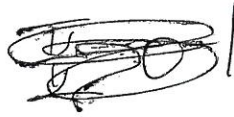
부: 부가적인 설명은 버리고 신_들은 제희가 ㅎㅎ
(유니폼)

중학생을 조심하세요.

1 : 등학생 형들

2 : 잔 밑이 어둡습니다

3 : 부가적인 설명 없이 선물은 저희가 가져갑니다



수련회

방학이 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다.

집을 떠나 이곳으로 수련회를 왔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족막을 खा는 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라면도 먹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곳이 खु수있어서 행복하다.

형제들 선생님들 목사님, 자매님, 집사님들

친구들, 동생들 모두 족막을 खा는 다.

이런곳에 खु수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된것이 감사하다.

모두 은혜 받을수있는 시간이 되었다.

항상기 베풀고 범사에 감사하자

~~안녕하세요~~

모두 खु거운 시간을 보낼수있어서 खु다.

~~안녕하세요~~

모두 खु고하셈니다.

삼해시

세 상의 현실에 치이고

사 처받고 힘들지라도

구 원 받아 주님 ~~과~~ ~~함께~~
과 함께

네 ~~가~~
로 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2. 포어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중고등부되자.



겨

겨울 폭한에도 이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을

울적한 기분으로 돌아가더라도

수

수련회가 끝나고 다 잊을수도 있지만, 또

련

연연해 하지도 않겠지만 ... 이때를

회

회상하며 추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세상의 것만 좇으면 그곳을

상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구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

별
2

별난게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요.

미
다

는 다는 입술의 고백과 반하여 살아왔습니다.

오
름

성을 구하지도, 그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

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고백합니다.

나

는 주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